



교회소식 & 이웃소식

- 함께여는교회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시 30분
- 함께 가는 공동체
뉴스앤조이,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하나누리, 희년함께,
개혁자들, 촛불 교회, 스텔라데
이지 대책위원회
- 교회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36가길 97(B1층)
- 교회 전화번호
02) 743-4113
- 교회 홈페이지
www.opentogether.org
- 교회 은행계좌
국민은행 089501-04-184175

섬기는 분들

교인총회의장	홍사성
교인총회서기	채은동
교인총회감사	윤범한
운영위원장	노희창
예배팀장	표승범
사회선교팀장	이지연
생활가족팀장	안용희
재정팀장	방태흥
나눔미대표	박상현
장로회	김대준
	김동훈
	송 건
	정모세
교육전도사	김 덕

1. 한반도의 평화, 경제정의,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함께여는교회입니다.
2. 오늘 예배 후에는 교인인사총회가 있습니다. (홍사성)
3. 11월의 동영상은 '흔적 없는 삶'(데브라 그래픽 감독, 2017년)입니다. 상흔 때문에 숨어야만, 떠나야만 하는 삶을 사는 어느 부녀의 이야기입니다. (정모세)
4. 523번째 촛불기도회는 “디엘이엔씨 건설 노동자 고 강보경님 추모기도회”로 모입니다. 11/23(목), 저녁 7시 30분, 디엘이엔씨 본사(서대문역 3번 출구) 앞에서 들꽃향린교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이지연)
5. 함께여는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가족팀에게 말씀하시면 소정의 안내와 교육을 통해 함께여는교회 식구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용희)

함께여는교회

함께 여는 이야기

'치매 환자의 슬기로운 사회생활'

비치매 환자로 살던 시절 맺었던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과 모임들이 발병과 함께 지속되기 힘든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손상된 기억과 인지력, 연약해진 신체로는 기존 사회에서 맡았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 역할로 맺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예 중단되거나 매우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실로 인해 이제껏 우리는 치매 환자의 사회적 삶에 내려진 사망 선고에 너무 쉽게 순응하며, 치매 환자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로 취급해 왔다. 그렇게 그를 수치스러워하며 집안의 사적 존재로 숨겨 왔던 것이다.

그러나 케어센터에서의 새로운 삶은 환자에게 새롭게 사회적 관계와 역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이 케어센터보다 많이 약화되었지만, 요양원도 요양병원도 역시 '하나의 새로운 사회'로서 환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인간은 죽는 날까지 사회 밖에 존재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는 말이다. 인간은 단 한 순간도 '사회적 존재'가 아닌 적이 없는 것이다. 동시에, 인간은 하나의 사회 안에서만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일도 없다. 우리는 늘 다양한 사회들에 참여하고 이동하면서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삶의 여정을 다채롭게 채워 가지 않는다. 그러한 관점에서 치매 환자는 나이 들이 선사하는 인간의 보편적 취약함으로 인간의 돌봄이 가장 정교하게 발달한 하나의 또 다른 사회에 도달하게 된 것뿐이다.

(...) 치매는 환자의 자의의식이 점차 열어지며 결국 완전히 없어지는 병이다. 현대 의학의 발전에도 이 병을 치료하거나 병의 진행을 완전히 중단시킬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러한 병의 예후로 인해, 치매 진단 자체가 이미 자의의식이 상실된 것처럼 선언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 환자들은 가치나 목적을 공유해 왔던 소속 공동체로부터 기존의 역할을 너무 쉽게 박탈당하거나, 이미 벌써 가족이 환자의 공식적 성년 후견인이 된 것처럼 법적 권리를 함부로 대리하며 그의 권리를 침해한다. 심지어 치매 진단 자체가 친구나 가족 관계로부터 단절당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환자에게 발병한 병의 의학적 진단이 인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리까지 박탈해 버리는 사회적 효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어센터라는 새로운 사회는 지친 가족의 짐을 덜어 주며 가족의 사랑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케어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새로운 우정을 쌓도록 한다. 공적 자금의 투여와 공적 감시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케어센터는 사적인 존재로 집 안에 갇혀 있던 환자들을 사회적 관계 속으로 다시 불러내면서 다시금 법의 보호 아래 지낼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케어센터는 보호와 돌봄이라는 목적을 공유한 공동체로서, 환자에게 '보호와 돌봄받는 자'라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케어센터에서 일하는 이들을 '보호와 돌봄의 전문 직업인'이 되게 한다. 쉽게 말해 구성원들 서로가 서로를 위한 존재가 되는 상호부조의 연대를 통해 케어센터는 사회적 생산의 새로운 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이 살아 있는 케어센터의 존재로 인해 나는 자의의식을 병리적으로 잃어 가는 치매 환자 역시 현대사회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자의의식의 인정 투쟁 한 축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뉴스앤조이]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함께 여는 예배

오전 11시 30분	사 회: 예배팀장
침 목 의 기 도	자녀들과 함께
신 앙 고 백	자녀들과 함께
찬 양 의 시 간	자녀들과 함께
공 동 기 도	표 승 범
성 경 본 문	누가복음 23:26-27,42-43..... 사 회 자
말 씬 나 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채 은 동
환영/알리는말씀	담 당 자
송 영 과 축 도	다 함 께

예배위원

	11월 19일	11월 26일	12월 3일	12월 10일
예배인도	예배팀장	예배팀장	예배팀장	예배팀장
대표기도	표승범	이지연	안용희	방태흥
말씀나눔	채은동	정모세	김 덕	외부강사
점심준비	김 밥	홍사성	이지연	김 밥
점심 설거지	노희창 정모세	방태흥 홍사성		

함께여는교회 신앙고백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명과 평화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여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임을 믿으며,
 이웃과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섬김과 사랑의 도를 배우고 실천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적용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긴 계시임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여는교회 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민 6:24-26)